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불교

유 정 길*

목 차

- | | |
|-----------------------|--------------------|
| I. 전환사회를 강제하는 기후위기 | IV. 불교의 다양한 공동체 사례 |
| II. 전환사회의 지향과 마을공동체운동 | V. 나가면서 |
| III. 불교의 공동체 전통과 역사 | |

국문초록

불교는 본래 승가공동체로 시작된 종교이다. 따라서 공동체로 살던 오랜 전통이 남아 있고,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향도나 승도, 결사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근거지역할을 했다. 최근 기후위기시대 풀뿌리 자치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이 생태적 대안사회운동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불교의 공동체적 시도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이 글에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불교의 공동체를 소개한다. 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찰>은 대각사, 대광명사, 성림사, 선덕사, 미황사, 화엄사, 마음재단 등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②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사찰>은 실상사와 낙산사, 관음사 처럼 마을의 공동체적 관계를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는 사찰 ③ <승가공동체, 계획공동체>로서 정토회나 행복한 절과 같이 수행하면서 함께 사는 초기의 승가공동체와 같이 살고 있는 곳이며 ④ <불교가 기반이 된 공동체>의 경우는 들꽃피는 마을, 우리동네사람들, 소호산촌협동조합 등, 공동체 성격이 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 시작한 사람들이 불교의 수행이 동력이 되어 시작된 공동체들이다. ⑤ <출자가 공동체>는 대부분의 선방과 사찰이 출자가 공동체이지만 모두 언급할 수 없어서 <백장암>만 소개하는 것으로 했다. 이러한 실험들은 불교가 새로워지는 모색의 과정이며 대안적인 미래를 만드는 노력의 과정으로 성공이나 실패든 결과가 아니라 과정적으로 볼때 모두가 큰 의미가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녹색불교연구소소장

논문접수일 : 2022. 5. 09. 논문심사일 : 2022. 5. 20. 게재확정일 : 2022. 6. 14.

주제어 : 승가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공동주거공동체, 불교공동체, 향도, 승도, 생태적 대안사회, 사부대중공동체, 재가자공동체, 공유사회, 커먼즈, 협동조합

I. 전환사회를 강제하는 기후위기

1. 삼계화택(三界火宅) : 집이 불타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세계적인 사태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불과 7-8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기후 1.5℃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이다.

기성세대에게 강력하게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그레타 툰베리>는 자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에 불이 났다는 비유로는 불교의 법화경에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온세계(三界)가 불난 집(火宅)과 같다고 뜻인데 <법화경> ‘비유품’에 표현된 삼계화택의 이야기는 이렇다. 큰 기와집에 불이 나지만 아이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빨리 나오라고 목 놓아 외치지만 노는데 정신이 팔려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밖에 재미있는 <장난감 수레>가 있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그 장난감에 관심이 쏠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결국 구출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장난감 수레>는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방편>이다. 방편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말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편일수도 있고, 빠른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일수도 있다. 때로는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법화경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밖에 장난감 수레가 있다는 ‘방편’으로 아이들을 일단 유혹(?)하여 구출해냈다. 일단 아이들이 불이 났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 나오게 하여 구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불타는 지구에서 인간을 구해줄 방편은 무엇일까. 방편이 있거나 할까? 사실 지금 우리는 불난 집에 갇혀있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살아야 집에 불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는 정황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집밖으로 나갈

데가 없다. 그래서 당장 불 지르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 그리고 불을 끄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우리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출발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지금 여기저기 불을 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도망갈 곳, 나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줄 예언자가 필요할까. 방편으로 우리는 꼬집어내게 할 선지식이 있어야 할까

2. 당장 불 끄는 일과 불나지 않는 근본대책

세계적으로 최대한 빨리 석탄과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일이다. 더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을 끄는 일이다. 탄소흡수를 위한 나무를 심고, 탄소배출권거래제도, RE-100, 탄소중립, ESG, K-텍소노미 모두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 전에 되돌릴 수 있도록 시급한 불을 끄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불이 난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불이 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대책을 세울 시간만 놓쳐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문제를 ‘탄소배출만 줄이면 된다’는 사고를 탄소환원주의라고 비판한다. 실제 환경주의 운동과 생태주의 운동을 분리해서 보는 입장이 있다. 환경주의(또는 환경관리주의)운동은 현재 발생하는 증상으로서의 기후변화, 쓰레기문제, 해양오염 등 배출을 줄이고 오염을 정화시키면 된다는 생사상은 바로 증상 해결만 집중하는 환경관리주의, 또는 표층적 생태주의(Shallow Ecology)로 비판한다. 기후위기는 최근 300여 년간 인간문명이 만들어온 성장발전의 부작용이며 증상이다. 근대문명이 저질러온 과보가 가장 약한 고리인 기후위기, 환경문제, 생태위기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병이 들면 원인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는 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한다. 기후위기는 증상의 해결과 동시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한다. 사실 기후위기는 근대문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메시지이자 시그널(신호)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또한 그런 메시지를 다른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신저라고 보는 것이다.

기후환원주의도 일종의 환경관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현상에만 집중하는 환경관리주의를 비판하는 생태주의(심층생태주의 Deep Ecology)는 위기를 초래한 물

질주의와 거대주의, 경쟁과 성장주의를 비롯하여 위계사회를 문제삼는다. 이러한 근대적 문명의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지구라는 물리적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원무한주의의 산업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은 위기를 피할수 없는 구조라고 본다. 또한 무한정 발전을 지향하는 무한성장사회는 곧 무한채굴주의를 토대로 한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자원을 채취하여 곧 무한한 물질생산을 이루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일수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적 관점을 기조로한 총체적인 사회적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해결과 더불어 생태적 대안사회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생태주의와 분권화의 관점에서 마을운동, 풀뿌리자치, 지역순환사회, 공동체운동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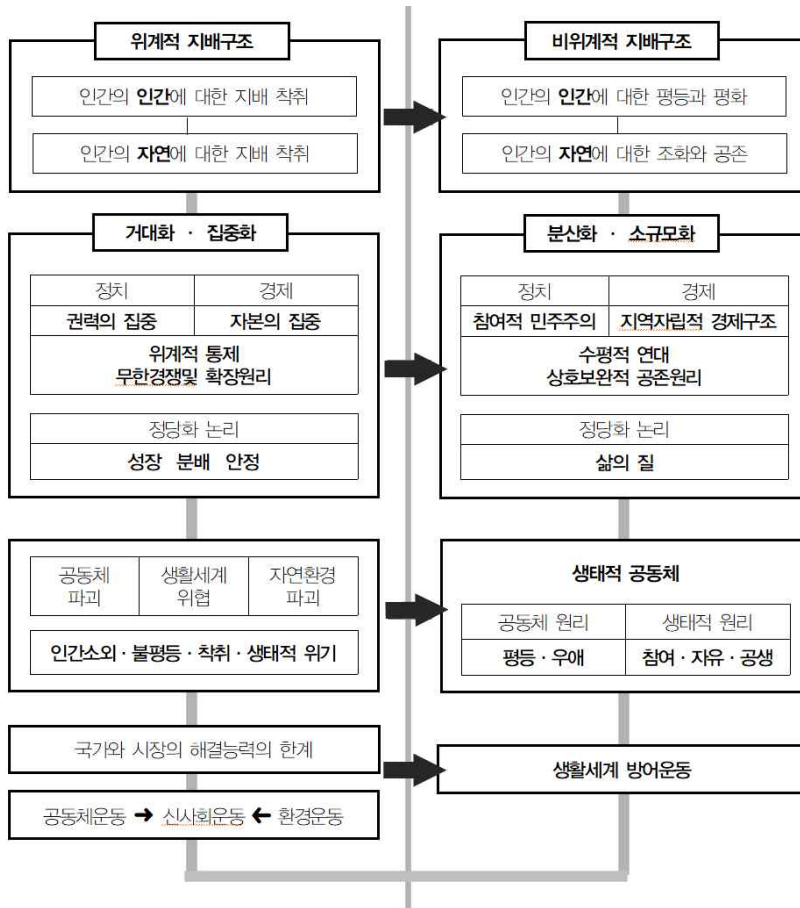
II. 전환사회의 지향과 마을공동체운동

1. 생태적 대안사회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생태적 지속가능한 대안 공동체를 선택하게 되는 구체적 이유와 그곳에서 실현되어야 할 사회의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생태적 대안사회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와 착취,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극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평등과 평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위계적 지배구조의 사회는 거대화와 집중화를 지향하고, 정치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과 경제에 있어서도 자본의 집중을 추구한다. 그래서 위계적 통제를 통해 무한 경쟁과 확장의 원리가 지배되는 사회이다. 반대로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는 분산화와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정치에 있어서 참여적 민주주의를, 경제에 있어서 지역자립적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모든 사회의 윤리는 수평적 연대와 상호 보완적 공존원리가 통용된다.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는 성장과 분배라는 삶의 양적인 지표를 거부하고 삶의 질을 기본적 근간으로 한다.¹⁾

그리고 생태를 파괴해온 위계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생활세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파괴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나 시장이

1) 이 글은 불교평론 46호 (2011년 3월호 46호), 필자의 글 ‘새로운 사회의 대안 운동으로서 불교 공동체’를 수정 인용했다.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동체 구상의 개념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과거에 시도되었던 공동체 운동과 환경운동을 결합시킨 창조적 형태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등과 우애가 넘치는 참여와 자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위의 그림을 통해 생태적 대안 사회로서 공동체에 대한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²⁾

2) 정규호, 1993 “환경문제 심화에 따른 생태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첫째, 생태적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는 거대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를 지향한다. (슈마허, 1973: 68) 국가 또한 거대한 국가를 지향하는 한 생태적 완전사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초국가적이고 전세계적인 협력에 의해서 도달될 수 없으며, 민족국가라는 제도 단위들을 통해서 역시 조직될 수 없다. 생태주의의 중요한 원칙은 분권화이다. 독일 녹색당의 초기 이론가였던 루돌프 바로가 코문을 옹호하는 이유로, 코문은 '경제적으로 비싼' 것이 아니며, 환경에 대한 인구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며, 정치적 분권화를 통해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종족과 개인의 소외감을 유발하는 거대조직과 자연원리에 합치될 뿐 아니라 인류학적으로 합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을공동체나 다양한 코문적 공동체의 시도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생태적 대안사회로서 공동체는 생활양식의 변화, 즉 소비와 생산을 축소시키는 집단적 방법으로의 가능성을 갖는다. 산업사회 속에서 개인은 소비수준의 절제가 용이하지 않다. 생태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에 의한 행복감이 아니라 물질은 최소한 '필요'에 만족하며 동시에 삶의 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여야 한다. 물질적 소비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물질의 절제와 삶과 관계,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더 많아'의 추구가 아니라 '자발적인 간소함', '주체적인 가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간의 신뢰와 긴밀한 관계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공동체를 이루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생태적 대안사회는 자립적 사회여야 한다. 무역과 국가적 경제행위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장이며 종속화 되기 쉬운 경제형태이다. 또한 허구적인 '욕망'을 '필요'로 착각하게 만들며, 결국 자원의 낭비를 결과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의 실질적 해결은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자립적인 경제구조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자립적 사회는 절대적 독립을 의미하는 '자족적'과 구별되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 상태를 뜻한다.

넷째, 생태적 대안사회는 개인적 소유보다는 공동소유, 또는 협동소유, 협력적소유를 추구한다. 협동조합, 커먼즈운동, 공동체운동 모두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며 나누며 돌보는 가치를 지향한다. 물건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소박한 삶이 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의 질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기후환경문제는 '소유할 수 없는 자연'을 소유하는 반 자연'에서 비롯되었다. 소유라는 근본적 반자연성이 모든 부정과 폭력의 씨앗이 되며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게 하고 나아가 확대를 지향하게 만든다. 이것이 자연을 수탈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며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핵심의 진원에 있는 문제이다.

다섯째로, 생태적 대안사회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순환사회를 지향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자립적이며 순환적이어야 한다. 생산과 소비가 멀리 떨어져있지 않고,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다. 그러나 농업이 대안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경제적 의미만이 아니다. 자연과의 일체 의식, 유기체적 사고, 전일적 사고 ‘자연으로 부터 배우는’ 삶은 농업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하며, 올바른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인간의 행위이다.

2. 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같은 이야기의 반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앞서 언급된 것은 공동체의 외부적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 내면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우선 공동체에서는 깨달음과 영적성정, 심리적 정화를 통해 정신적 각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승가공동체가 그러했고, 초대기독교 공동체와 가톨릭의 그 많은 수도원이 그러했으며 지금도 많은 공동체들은 정신적 가치, 영성을 중요한 근본으로 하고 있다. 계급사회와 인간소외,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기란 힘들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만 정신적인 성장, 영적 성장뿐 아니라 심리적 정화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용이하다.

둘째로는 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나눔과 사랑, 배려와 인간애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커다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체가족’은 내 것과 네 것 없이 공유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상호부조하는 삶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항상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할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공동체는 성차별, 인종차별,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사는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매맞는 아내들의 피난처로서, 성적소수자를 위한 공동체, 장애자들을 위한 공동체등, 소외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위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기도 하다.

셋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난한 삶을 살아도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은 기존의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협력적 관계가 높은 공동체에서는 가능하다. 공동주거공동체나 계획공동체의 경우는 개인이 하나씩 냉장고를 개비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큰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공동체에서는 모든 물건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아 더 많은 풍요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친환경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작게 사는 삶, 자발적인 가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위해 생태공동체를 만들어왔고 기존의 공동체들도 생태적인 시스템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는 마을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상호부조하며 자급자족을 통해 외부 세계에 의존적이지 않은 삶을 구현하며 살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미래와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일종의 실험실이다. 이것은 수행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정신에 입각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정신적인 한계를 실험한다. 승가공동체에서는 관법, 염불, 화두선, 간경, 명상 등, 우주의 실상을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실험되어 전해져 왔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변화와 발전을 위해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해 온 곳도 공동체이기도 하다. 아랍과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등의 분쟁 조정을 교육한 하버드 협상팀의 집단동력학(Group Dynamic)기법도 캘리포니아의 에살렌 공동체에서 실험된 결과물이다. 영국의 핀드혼공동체처럼 개인과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조율하는 ‘집단조율(Group Attunement)’의 방식, 스프링 힐 공동체에서는 ‘마음열기’, 메타노킷 공동체에서 ‘상호상담기법’등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버지니아의 공동체인 새년농장의 경우 ‘노동자 소유의 협동기업모델’의 성공적 개발, 덴마크의 공항근처의 히피공동체로 1500여명이 살고 있는 ‘크리스티아니아(Christiania)’는 아무런 지도자 없이 자치적인 도시를 만들어 경찰과 세금이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³⁾

또한 다양한 기술적 실험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핀드혼공동체의 유기농업과 다양한 퇴비만들기, 팜공동체는 자연분만술, 아르고산티에는 환경계획도시, 세븐오크스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요법, 치누크 공동체에서는 대안적인 경제시스템 등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교육실험도 있었다. 스프링벨리 공동체에서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방식에 따른 발도르프 교육을, 그리고 트윈오크스 등을 비롯한 많은 공동체가 ‘홈스쿨링’과 ‘어린이 언어교육’ 정도회도 불교의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일체의 장’등의 독특한 수련프로그램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3) MaLaughlin and Girden Davidson, 1985, "Builders of Dawn" - Community Lifestyles in a Changing World, Book Publishing Company (코린 맥러플린, 고든데이비드슨 지음, 황대권 책입번역, 2004, “새벽의 건설자들”, 한겨레신문사, 88쪽.

III. 불교의 공동체 전통과 역사

1. 부처님의 초기 승가공동체

부처님은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떠오르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 함께 수행한 다섯 비구에게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시면서 6명의 구성된 최초의 승가공동체인 상가(Sangha)를 만드셨다. 이후에 야사와 그 친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 60명이 되었다. 이후 불교공동체는 계속 커져서 2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초기경전에는 ‘비구여’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후 대승경전에는 ‘선남자 선여인들이여’라는 용어를 쓰실 걸로 보아 대승불교 공동체는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 우비아를 포함한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든 기성의 가치관을 뒤엎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자들은 집을 나와 함께 집단을 구성해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계급을 뛰어넘는 가르침이 계급사회 속에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깨달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의 구분된 삶으로서 승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승가는 부처님이 열반 후 약 100년이 지난 뒤에 계율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영향력이 직접적이었고 따라서 결속력이 강했지만, 입멸 후 느슨해진 공동체는 결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 결집은 ‘사분율(四分律)’로 대표되는 소승계율과 ‘범망경(梵網經)보살계’ 등의 계율과 청규를 근거로 생활해오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왔다. 특히 철저한 무소유정신과 깨달음을 위한 승가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엄격한 질서가 필요했다. 불교의 수행공동체는 가장 오래된 만큼 초심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율은 쌓이고 쌓여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만들어져 내려왔다.⁴⁾

승가공동체는 승단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 공동체를 구성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 중생계로 돌아가 그들을 구제해야한다.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외부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선방에서는 안거(安居)라는 형태와 만행(萬行)이라는 방식으로 ‘단힘과 열람’의 주기를 만들어놓고 있다. 공동체안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증득하고 그것을 외부세계에 회향하며, 다시 속세에서 경험한 것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삼는 것이다.

4) 박병기, ‘상좌불교 공동체의 계율은 여전히 유효한가’, 불교평론 44호.

2. 한국의 역사 속에 불교공동체 - 승가, 결사, 향도, 승도

불교가 전래된 이래 신라와 고구려, 백제 그리고 이후 고려에서 불교가 공인되었고 수많은 사찰들이 만들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승가공동체들이 출현했다. 더욱이 풍수지리의 대가이신 도선국사의 비보사찰(裨補寺刹)사상으로 인해 산세나 지세, 수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운이 강하거나 약한 곳에 생기는 재앙이나 화를 막기 위해 세운 비보사찰이 많이 건립되었다. 당시 사찰의 도량은 우리 고유의 사회정신과 문화를 포용했던 사람들의 공동체공간이었고, 마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각종 지방민들과 더불어 불교행사를 하면서 승가공동체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⁵⁾

또한 여러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합된 단체로서 <결사>가 있다. 불교가 권력과 유착하여 권세를 누리며 중생을 외면한 채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항상 그 가르침 본원으로 돌아가 굳건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서원하는 결사체들이 생겼다. 중국 동진의 혜원스님의 백련결사이후, 강주의 염불만일결사나 고려 인종 때 진억대사에 의해 지리산에서 수정사(水精社)라는 결사가 있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왕실과 결탁하여 부패할 때, 몇몇 뜻있는 승려들이 모여 혁신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이다. 지눌은 수선사(지금의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문”을 쓰고 세속화된 호국불교, 미신 불교를 타파하고 타락한 형식 불교를 척결하며 정법불교와 수행불교를 주창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개혁적 결사는 요세(了世)의 천태종 백련결사가 있었고, 화엄종계에서도 결사가 있었다.

대중들의 불교 신앙공동체로 <향도(香徒)>가 있다. 고대 신라 때 향도(香徒)는 불교신앙을 목적으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결사조직을 말한다. 최초의 향도 사례는 신라에서 609년(진평왕 31)경에 김유신을 중심으로 조직된 화랑도(花郎徒)를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불렀다고 한다.⁶⁾ 신라후기와 고려전기의 향도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였고, 불상, 종, 석탑, 사찰 등을 조성하거나 법회, 보시, 매향 등, 대규모적인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불교 신앙활동이 주된 활동이었다고 한다. 대부분 스님과 일반신도들이 함께 조직되어 작게는 20여명에서 크게는 3000여명에 이를 정도의 규모였다고 한다. 농업기술의 발달과 분화된

5) 황인규, ‘전통시대 한국사회의 불교공동체’,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dlpul1010&logNo=221645751226&parentCategoryNo=&categoryNo=11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6)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35800>

소농민들의 상호부조를 위해 향촌공동체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17세기이후 이양법 등 농업기술의 발달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공동노동조직으로서 <두레>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향도는 의식이나 상제일 등만 하는 일로 축소해졌다.

그리고 신라말 고려시대에 국사나 왕사를 비롯한 고승들은 왕실과 백성의 존경을 받았고, 사찰의 고승들도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수장역할을 해왔다. 그러면서 당시의 지역에서 사찰의 세력과 경제력이 커지면서 그러한 사찰의 일을 담당하는 <승도(僧徒)>들도 증가했다. 조선중기 동국여지승람에는 당시에 1,600여개의 사찰에다 국가공인승려가 5,500여명이라고 했다. 한편 세조 13년 호패 발급 시에는 승려수가 30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종11년 정극인의 상소에는 10만 5,6천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1만여 사찰과 10만여 승려는 오늘날 사찰수의 4배에 승려 수는 1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들 10만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승이 아니고, 국가에 공인되지 않은 승려, 재가화상(在家和尚), 수원승도(隨院僧徒), 도중(道衆) 등은 비승비속인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지역의 민정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들 <승도>는 결국 사찰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부대중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승유억불 정책과정에서 모두 환속의 대상으로 삼거나 혁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아무튼 조선말까지 이들의 승도들은 불교의 거대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나 불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승도속에 승려로 불리는 사람도 엄밀히 수행승과 다르며, 사찰이나 마을에서 재가를 이루면서 살았고 때로는 이들이 조선정부의 위협적인 존재로 당취(黨聚) 즉 ‘맹추’가 되기도 했다한다.

3. 불교공동체의 분류

공동체운동을 논할 때 항상 부처님당시의 승가공동체를 언급하듯이, 불교는 수행공동체로서 현재 함께 생활하며 수행하고 결계를 이루는 <현전승가(現前僧伽)>가 실제 승가의 실체이다.⁷⁾ 그래서 갈마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포살과 자자를 통해 승가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왔고 <사방승가(四坊僧伽)>라는 형태로,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시간적으로 확장된 수행공동체 뿐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 뿐 아니라 선조들과 미래세대, 나아가 수많은 유정 무정물까지를 서로가 관계맺으며 존

7) 이명호, “미래사회 사찰공동체연구”,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2020, 48쪽.

재하는 공동체를 뜻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불교공동체연구에서 이명호는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와 출재가가 함께 하는 <사부대중공동체>, 재가자들 중심으로 수행하고 법회를 보는 <재가자공동체>, 출재가 수행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수행하는 <승가공동체>, 그리고 출가자들의 수행공동체인 <출가자공동체>로 구분했다.⁸⁾

그러나 본인은 조금 다른 분류를 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속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역할을 하는 사찰을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찰>로 명명했다. 2) 다음으로 사찰이 마을에 강력한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며 주민들을 굳건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사찰을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사찰>로 명명했다. 3) 불교가 기반이 되어 함께 생활공동체로서 출재가 함께 수행하며 사는 곳을 <승가공동체(대안적 계획공동체)>로, 4) 불교공동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의 출발이 불교적 수행지향적인 사람들이 주도하여 만들었거나 중심으로 참여하는 곳을 <불교가 기반이 된 공동주거공동체>로 규정했다. 5) 그리고 사실 모든 선방은 출가자 공동체라고 할수 있지만 현재 가장 결계와 승가공동체성을 잘 갖추고 있는 대표성을 갖는다고 본 곳을 <출가자 공동체>로 명명했다.

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찰		②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사찰	
대각사	경기도 시흥시	실상사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광명사	부산시 해운대구	낙산사	강원도 양양군
성립사	서울시 마포구	농선도량 관음사	경북 봉화
선덕사	광주시 동구	③ 승가공동체, 계획공동체	
미황사	전남 해남군	정토회	경북 문경, 서울
화엄사	전남 구례군	행복한 절	경남 거창
마음재단	대구	④ 불교가 기반이 된 공동체	
⑤ 출가자공동체		들꽃피는 마을	경기도 안성
백장암	전북 남원	우리동네사람들	서울 김포
봉암사	경북 문경	소호산촌협동조합	울산시 울주군

8) 이명호, 앞의 논문 88쪽.

IV. 불교의 다양한 공동체 사례

1.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찰

그동안 사찰이 지역사회와 관계하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존재해온 기존의 사찰과 달리, 여기에 소개된 사찰은 도시나 농촌 등에서 지역과 결합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고 마을공동체의 부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찰>로 분류했다. 대체로 동사무소나 구청의 주민참여위원회에 스님이나 신도들이 참여하고 문화시설등을 인근 마을사람들에게 제공하여 활용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사찰이 마을 속에 스며들어가는 활동을 하는 사찰의 사례이다.

1) 대각사 : 경기도 시흥시 대각사⁹⁾

시흥시와 안산시의 경계에 입지하고 있는 대각사는 1950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주지 원돈스님은 지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지역아동, 청소년대상의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불교는 중생의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력으로 지역시민모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지역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홍부네 책놀이터’이다. 이곳은 방과후 교실과 도서관을 겸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아침을 굶는 아이들이 많아 아침식사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곳 정황1동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기초학습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이들이 가고 싶은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이곳은 방과 후 교사와 자원봉사 등 인적자원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속에 충원하고 운영한다. 특이한 것은 관의 지원을 거절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사찰의 재정만으로 고집스럽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점들이 신도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어 좋은 생각의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곳이다.

또한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쌀과 라면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홍부네 책놀이터에는 작은 나눔상자가 있어 누구든 자유롭게 기부하고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도록

9) 이 글은, 2021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의 불교사회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찰 일기”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했다. 집필은 이명호(2022)박사가 했고, 함께 연구한 팀은, 원철스님, 운문스님, 은산스님, 유정길, 박재현, 조기룡, 박정규이다.

하면서 나눔활동을 한다. 주지 원돈스님은 지역 내 목사님이 창립한 비영리단체인 ‘좋은이웃공동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종교간 교류활동도 하면서, 18세가 되면 나가야하는 아동보육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송암동산> 자립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지역의 신망이 높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2) 대광명사 :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의 신시가지에 있는 대광명사는 2009년 목종스님이 창건한 도심사찰이다. 목종스님은 대광명사 뿐아니라 서울 포교당인 지금선원도 운영하고, BTN에서 탈렌트 선우용녀님과 <가피>를 공동진행을 할 정도로 눈코 뜰새없이 활동하고 있다.

신도들에게 각별히 보살행을 강조해오셨고, 사찰에 봉사활동을 위해 ‘사무량심회’를 결성하여, 독거노인 반찬도시락과 필요물품 배달봉사활동을 벌였고, 장례를 지원하는 ‘대원염불 공양회’를 결성했다. 구청과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차상위 계층을 지원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매주 수요일 장기기증자와 자살자, 무연고자, 고독사, 사고사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49재를 봉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한 활동과 더불어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으로 살처분 당한 동물과 동물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천도재도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별한 활동은 인근지역에 알려지면서 대광명사는 많은 관심을 받는 사찰이 되었다.

목종스님은 지역의 경찰서의 경승으로 활동하면서, 사찰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결합하는데 주민센터나 경찰서등 공공기관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야 지역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사전에 알게 되고, 지역에서 지원하고 도울 사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스님은 관내의 시민사회단체와 불교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과 불교 내 선한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잘 활동하도록 협력하는 일이 지역을 살리고 불교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 성림사 : 서울시 마포구

성림사는 마을공동체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홍대 앞 성미산에 있는 절이다. 주지 현담스님이 이곳 절을 설립한 것은 2010년이다. 초기 설립 때부터 사찰구조를 각별히 개방적으로 설계를 하여 종교와 무관하게 지역민들이 사찰을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님이 지역의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교류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일찌감치 파악하여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돕고 협력할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사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주지 현담스님은 주요활동으로 ‘상담’을 강조하시고, 특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농인들을 위한 ‘농인법회’도 매월 2회 봉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자비두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 사찰의 특이점은 사찰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쉽게 찾아와 휴식하고 머물수 있도록 개방하고 1층을 도서관으로 운영한다. 바로 옆 구립 ‘성미어린이집’이 있어 산을 찾는 사람들이나,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매일 성립사를 이용하는 매력적 공간이 되고 있다. 현담스님도 역시 마포구청 불심회, 마포경찰서, 서부지방검찰청 법사등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 선덕사 : 광주시 동구

선덕사는 1970년에 창건되었고 도시포교에 열정을 내신 행법스님이 활성화시킨 뒤 2012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선덕사가 있는 산수2동은 무등산과 지산유원지의 출입지에 위치해 있다. 2014년 대안도서관 <퇴움>을 개관했고, 마을 사랑방 카페인 <씨앗이 바람을 만나>를 개장하여 광주시의 최우수운영도서관으로 여러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이곳은 당연히 지역사람들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고, 2층과 3층은 상담과 신행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사찰의 공간을 지역사회와 관련된 모임과 단체들이 사용할수도록 하여 지역사람들과 직접 간접적인 유대와 협력활동을 한다. 이뿐만아니라 이전부터 어린이 전래놀이 프로그램 ‘선재놀토학당’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포교중심도량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도서관 <퇴움>, 카페 <씨앗이 바람을 만나>을 운영하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활동간사가 있고 12명의 사찰운영위원회가 있어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심의하여 진행하며 실질적인 사부대중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 도서관과 카페에서는 인문운동가인 이남곡의 <논어>강좌를 시작으로, 수유넘어 R 고병권의 <철학강의>, 영화, 매월 1회 시모임 “나루터”, 매월 1회 책읽기 모임 “씨앗”, 청소년영상밤 “봄”, 도법스님이 참가하는 시읽는 모임 등도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스토리텔링 밤실마을’이라는 마을과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알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키는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5) 미황사 : 전남 해남군

미황사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로 너무도 유명한 절이다. 20년 동안 주지를 해 오셨던 금강스님의 역할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일찌기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사찰의 각종 행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당산제>, <괘불제>가 대표적이었다. 1990년 주변 마을의 이장들이 방문하여 <당산제>를 절에서 지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바닷가 3개의 자연부락인 어불도, 월강리, 어란, 산정등의 마을에 그동안 당제를 지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은 미황사 스님들이 기도해주면 1년 내내 바다에서 사고도 없고 풍년이 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황사는 30년간 마을을 위해 한 번도 안 빠지고 당제를 지내왔다. 이런 경험이 또 <괘불제>로 이어졌다. 역시 마을주민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괘불을 걸고 법석을 열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믿음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종합산사문화제>로 발전하였다. 최근에 로 미황사 음악회는 지역의 소리꾼들과 예술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점이 각별하다. 그날은 동네장터가 열리고 지역 농산물들을 홍보하기도 한다.

또 재미있는 것은 어르신 노래자랑이다. 부처님오신 날을 마을잔치로 열어 마을 대항 노래자랑을 하게 하면 한달간 연습들을 하면서 대단한 열기를 발산하고 이로 인해 부처님오신 날은 그야말로 큰 지역축제가 된다고 한다. 각별한 것은 음향이나 조명등까지 모두 지역주민들이 운용하여 스스로 장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워오는 바람에 세월호 당시 팽목항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의 음향을 책임 맡을 정도였다

그리고 절의 밑에 있는 서정분교(현재 서정초등학교)가 2003년 폐교위기에 있을 금강스님은 지역유지, 학부모들을 설득하여 학교살리기를 했다. 지역의 학교가 살아있어야 젊은이들도 귀농을 하게 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강스님이 방과후 교사로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차량도 운영하면서 결국 폐교를 막고 지금은 분교에서 <서정초등학교>로 승격되어, 미황사는 탁본, 달마산 생태수업, 숲해설 등의 학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에 분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도 진행하는 등 해남지역속의 자랑이자 활력을 주고받는 지역공동체의 사찰로 든든히 자리를 자고 있다.

6) 화엄사 : 전남 구례군

화엄사는 어느 교구본사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관심이 많고 많은 활동을 구상하는 대표적인 교구본사이다. 아예 구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 담당협력을 맡는 팀장을 두고 있기도 하다. 우선 주지 덕문스님이 취임한 이후 행한 대표적인 활동은 관할 사찰인 천은사 통행료 폐지였다. 천은사 입장료 갈등도 상생의 입장에서 사찰 내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기반으로 군청과 도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구례군 농민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갔다.

이뿐 아니라 2020년 8월 구례지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수해현장에 산중스님들이 모두 나와 보름간 복구에 참여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끈끈한 신뢰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10년간 포교한 효과와 같다고 평가할 정도였으며, 선방 정진 만공의 개인적인 깨달음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항상 지역사회의 관공서와 시민단체활동에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지스님은 ‘사찰이 사찰울타리 밖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사찰은 상생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역할’라는 입장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 지역의 농민회, 상가회, 청년회, 산림조합, 의용소방대, 시민단체등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통일쌀 공동경작단>은 2007년 구례군농민회, 화엄사, 기아자동차 노조가 참여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이었다. 그리고 화엄사 입구에 지역농산물 홍보판매장 등도 농민회와 협력하여 서로 돕는 활동이다. 그리고 화엄사 상가지구 소생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관계자들끼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각별하다. 특히 최근에는 지리산 화엄사일대의 기후환경을 위해 <녹색전환민관협의체 준비모임>, <성삼재, 정령치 도로전환연대>등, 지리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매년 자비나눔의 쌀나눔과 복지단체후원 활동과 지역초등학교 학생 초청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에 2019년 설립한 <빛고을 포교당>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아침공양”등 지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7) 함께하는 마음재단 : 대구

대구 ‘함께하는 마음재단’은 관오사의 금고 지도(金鼓 智道)스님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복합체이다. 이 재단은 1990년 불교사회복지회로 설립된

이후 현재 ① 노인복지영역으로 <햇빛노인복지센터>,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희망의집(경로식당)>, <여래원>,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범물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8개의 시설을 운영되고 있으며, ② 자활복지영역에 <대구남구 지역자활센터>,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대구남구 시니어클럽>, <대구 수성시니어클럽>, <수성여성클럽>,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6개의 시설을 ③ 지역복지영역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지역아동센터>, <유리어린이집>, <대구남구가족센터>, <보현이주여성쉼터>, <대구서구청소년수련관>, <대구수성구가족센터> 등의 7개 분야에서 21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복지활동을 불교시설로서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재단은 2005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 모든 활동의 중심적인 의제로 삼아 집중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산하 기관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진행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교환제도로써 지역통화 ‘레즈’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잇는 햇빛촌마을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만들기, 사람만들기, 문화만들기 등을 추진해온 사례는 의미있게 주목해야 할 사례이다

2.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사찰

이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찰은 마을에서 사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성격을 바꾸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곳에 대한 소개이다. 지역사회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곳의 대표적인 곳은 산내면에서 실상사, 낙산사가 있는 인근 마을, 봉화의 농선도량 관음사 등이다.

1) 실상사 : 전북 남원시 산내면

한국사회에서 나뉠 면모를 갖춘 지역공동체를 말하라면 실상사가 중심이 된 남원시 산내면의 지역공동체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실상사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의 근본도량이다. 현재 실상사는 사찰 고유의 활동과 지역에서의 사찰의 역할을 전개하고, 더하여 생명평화운동의 거점으로 마을공동체 운동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상사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출·재가자들이 함께 살며 공동체의 나눔과 화합, 수행을 위한 시간을 갖고, 수시로 생명평화 100대 서원 절명상, 법회(야단법석)나 문화 초청 강연, 공동체 토론(대중공사) 등을 하며 매주 정

해진 시간에 함께 공동운력을 한다.

실상사는 1994년부터 약 20년 걸쳐 화엄학림이 초기동력 역할을 해왔다. 비구, 비구니가 동등한 자격으로 입학하여 2년간 공부를 하는 수행자들의 중심 도량이었지만, 이제 실상사는 출가와 재가자가 함께하는 신대승불교운동을 모색하며 펼쳐나가는 거점이 되고 있다. 그 시발은 1998년 시작된 장기 불교귀농학교였다. 2010년 말까지 운영된 3개월 과정의 장기귀농학교에서 배출된 1,000여 명의 졸업생이 인근 산내면에 정착하면서 지역공동체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실상사는 지리산권 생명평화연대활동을 전개하는 중심거점이다. 산하의 사단법인 <한생명>을 중심으로 마을 운동을 전개하며, <여성농업인센터>는 문화활동, 돌봄 활동, 어린이집 및 방과후교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상사농장은 공동운력과 기관별 농사, 나눔텃밭 등의 활동 터전이 되고 있고, 중, 고등과정의 대안교육을 진행하는 <실상사 작은학교>와 창의적 배움과 생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생명평화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실상사는 지리산을 매개로 한 지역생명운동의 중심이다.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와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을 통합하여 <지리산생명연대>를 창립했고, <생명평화결사>, <사단법인 숲길(지리산 숲길)>과 <지리산 종교연대> 등을 만들었으며, 세월호 지리산 천일기도 등의 모태역할을 통해 생명평화운동을 확대시켜 왔다.

또한, 남원시 산동면의 <귀정사>는 인드라마수련원으로써 교육과 명상수련 등을 진행해 왔고, <남원귀농귀촌학교>와 숲살림원, 사회연대 쉼터 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드라마 생명공동체는 광주 선덕사를 중심으로 도시공동체 사찰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생협과 도시마을공동체 운동 및 <우리웃 인드라마>을 운영한다.

실상사는 고려 시대 ‘승도(僧徒)’를 모델로 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분권과 주민자치가 바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이며, 향후 조계종단도 그러한 변화의 방향과 조응하여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나가야 한다고 할 때 실상사의 이 실험은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며 지향해야 할 한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도법스님과 실상사의 실험과 실천은 한국불교의 대안으로서의 비전을 넘어서 한국사회와 세계의 비전을 키우는 자궁이자 씨앗 역할로 주목받았다. 2001년 5월 26일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진행된 ‘생명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와 이후 좌

우익 이념대립 희생자와 개발에 스러져간 못 생명을 위한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 지리산 천일기도’가 진행된 뒤에, 이를 기반으로 <지리산생명연대>를 거쳐 2003년 11월 15일 <지리산 생명평화결사>가 창립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1일부터 지리산 노고단에서 ‘생명평화탁발순례’의 대장정이 시작되어 2008년 12월 13일까지 장장 5년간에 걸쳐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 인사들과 회원들이 전국 방방곡곡, 도시와 농촌을 다니면서 우리 사회의 지역 현장을 살폈고, 지역의 사회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 장정은 과연 이 시대 생명은 무엇이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만나는 대화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 ‘생명’, ‘생명운동’이라는 용어의 관념성 때문에 많은 사회 인사들조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5년간 순례를 통해 ‘시대의 앞선 가치이자 전환의 새로운 이념’으로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생명평화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지역자치, 풀뿌리 생명공동체 운동’의 철학적 방향이 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상사는 귀농학교라는 교육사업으로 사람을 모으고 이들을 인근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하여 산내면의 총 2천여명의 주민중에 약 600여명의 귀촌 귀농자들이 정착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대안학교, 학부모 모임, 여성농민, 어린이, 청소년, 각종 공부모임과 카페, 식당, 옷가게, 등이 생겨 농업중심에서 마을살이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18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았고 오늘날까지 실상사는 지역공동체의 ‘비밀 언덕’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점차 과거와는 다른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다. 실상사는 이제 더욱 근본에 천착하면서 산내면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진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 낙산사 : 강원도 양양군

동해의 유명 관광지인 양양의 낙산사 근처에 <불자마을>로 명명한 마을이 6개가 있다. 특히 낙산사 바로 뒤인 용호리 80여 가구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낙산사가 이처럼 마을과 끈끈하게 결합된 것은 2005년 4월 5일 낙산사의 산불로 인한 화재사건부터였다. 당시 낙산사는 완전히 전소가 되었을 뿐아니라, 인근의 6-7개 마을도 화재로 전소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 낙산사의 주지 금곡스님은 1-2차에 걸친 사찰복원불사를 하면서도, 마을전체를 꼼꼼이 둘러보고 화재가 난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일일이 파악하여 마을의 주민들의 복구도 함께 각별히 신경을 쓰고 도우면서 마을 전체의 재난을 함께 극복해나간 것이었다.

이 과정에 용호리, 전진 1리, 전진 2리, 사천리, 손양면, 주청리 등 사하촌 6개 마을 400여 세대는 낙산사의 큰 도움을 얻었다. 이후 용호리에 가스정압소가 마을에 건설하려 할때 낙산사와 함께 힘을 합쳐 물리쳐낸 성과도 더해졌다.

그런데다 총무이신 <수미스님>은 바쁜 낙산사의 내부 업무도 불구하고 6개 마을을 매일 직접 다녔고, 마을 어르신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일일이 노인들의 건강도 살피왔다. 그래서 마을에서 낙산사는 그냥 절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과 삶과 긴밀하게 결합된 공동체의 중심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수시로 모여 법회도 열었고 사찰이 주민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는 주민이 사찰을 살뜰히 살피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을사람들이나 사하촌 주민들도 낙산사의 절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손발 벗고 나서서 일을 돕고,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제등행렬을 하고 마을 축제를 열면서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특별한 것은 용호리의 마을 초입에 <수미산 탐>을 세워놓고 입구에 <불교인의 마을>이라는 표지판까지 세워놓았다. 마을주민의 투표로 80%넘게 동의하여 불자마을로 명명했다고 한다. 마을 주민전체가 낙산사로 법회를 가고, 그 때문에 마을끼리 서로 상호부조하고 협력하는 일이 자주 있게 된다고 한다.

사찰과 마을이 큰 화재로 전소된 것이 오히려 상부상조의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었고, 현재는 화재 전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나아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사찰이 인근 마을과 상호부조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살았던 <승도>가 재현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껏 <실상사>가 도법스님과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지리산 산내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이곳 낙산사는 주지스님이신 금곡 정념스님의 자비심과 안목, 총무 수미스님등의 원력과 노력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3) 농선도량 관음사 : 경북 봉화¹⁰⁾

농선도량 관음사는 동명스님의 발원으로 창건된 사찰이다. 이후 외손자인 최병호 법사가 맡아 운영하면서 ‘일 수행도량, 염불하며 일하는 도량, 즐거운 도량, 행복한 도량, 공부하는 도량’을 기치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왔다. 농선도량은 “말 그대로 농토를 수행의 기본도량으로 삼고 농토가 바로 대불전(大佛田), 소불답, 참선밭을 삼아 수행하는 도량이다. 파종할 씨앗에 부처님의 대자비를 심고, 수확한 농

10) 유정길, “불교와 공동체 - 불교기반 공동체의 실험” 중앙승가대 ‘종교기반 지역공동체의 현실과 과제’, 2008 필자의 글을 재인용.

산물에 대자연의 감사함을 담아내는 도량, 밭을 갈고 김을 매면서 풀 한 포기마다 불보살님의 명호를 새기며, 이 농산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처님의 공덕을 전하는 도량'을 발원하고 있다.

그는 초기에 기도하고 정진하며 법사로서 법당을 안정시키는 활동에 전념했고, 특히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으면서 고향 동네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는 법사로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믿음을 쌓아왔다. 사찰 내에 신도조직인 거사 불자 모임 <유마회>, 여성 불자 모임 <승만회>, 청년 불자 수행모임을 조직했고, 매월 헌공법회와 근본교리 강좌 등, 다양한 공부모임을 빼놓지 않았고, 유마회를 중심으로 생활의례를 불교식 의례로 만들어 널리 알리는 등 농선도량 관음사가 지역 신행조직으로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농한기(11월~4월)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기초예절, 부처님 일생, 근본교리, 천수경, 반야심경 강의를 하고, 백중 10일간은 특별정진으로 목련경, 우란분경, 부모은중경, 자비도량참법 등을 독송·공부하였으며, 매년 동안거 100일 정진 기간(12월~3월)을 두어 기도하고 수행일기를 쓰며 자기 점검을 하는 일상수행을 펼쳐왔다.

농사는 수많은 다른 생명의 희생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1년에 3번 방생 법회를 했다. 그리고 군법당을 방문해 장병들과 합동 법회를 갖는 것 이외에 상담, 강의, 공연 등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하였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군부대 장병들을 교사로 초빙하여 수학과 영어 등 방과 후 학업을 도와주고, 인성개발 교육으로 108배 기도와 참선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해 왔다. 그리고 환경생태학교를 중심으로 한 여름불교학교도 빠짐없이 진행하면서 지역의 청소년, 젊은이들과 군부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해왔다.

농선도량은 사찰로서 만이 아니라 지역의 훌륭한 <농업지원센터>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하였다. 최병호 법사는 밭과 논, 들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일손을 도우며, 새로운 농법과 다양한 전문성을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농사가 곧 수행이었던 그는 법사이지만 농사꾼이면서 마을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인사였다. 그는 트랙터를 구매하여 마을의 밭가는 일 전체를 도맡아 했고, 품앗이의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의 간식도 제공하는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또한 그는 <육종 연구실>을 만들어 배양한 동양란, 부귀란, 식충식물 등, 특용작물을 자체 생산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들을 축제행사나 전시회에 출품하고, 부설농장에 각종 체험장을 만들어 기업들의 방문을 유치하며 지역농산물을 판매

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다양한 도농 교류의 장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지역 내에 다양한 소모임을 주도하고 만들었다. 풍물패 <하늘지기 땅지기>를 창립하여 부처님오신날, 봉화 송이축제, 삼계 줄다리기, 농업인의 날 등에 공연하면서 지금은 60명의 단원이 활동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또 상운면 조기축구회를 만들어 지역의 젊은이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어울렸고 이들 젊은이들은 봉화지역공동체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봉화와 상운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여 5년간 70억 원의 지원을 받아 가곡리, 운계리, 하눌리 일대를 개발하는 추진위원장을 맡아 지속가능한 상운지역을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위해 상운면소재지에 <황토찜질방, 방과후공부방, 지역정보센터, 운동시설> 등의 만들었고, 폐교를 매입하여 <도농교류센터>,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지역농촌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 등을 해왔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참농부>를 만들어 공부하고, 특히 귀농교육기관인 <봉화 전원생활학교>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1,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 중 400여 가구가 봉화로 귀농하게 하였다.

그는 봉화 관내의 종파를 초월한 신행조직인 <봉화불교 범우회>를 결성하여 크고 작은 봉사활동과 이웃 종교들과의 체육대회와 상호교류 활동을 전개하며, 매월 1회 큰스님을 찾아뵙고 불교공부를 하는 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청소년 문제, 교육문제,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왔다.

농선도량은 80년대 사회변화를 위해 학생운동을 해왔던 최병호 법사 한 사람의 원력이 지역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농선도량은 조계종 사찰도 아니고 더욱이 출가승이 아닌 재가법사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높은 원력으로 이루어가는 지역공동체라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3. 승가공동체, 계획공동체

1) 정토회 : 서울, 문경

공동소유 또는 무소유 공동체로서 유형은 초기불교의 승가공동체와, 이것을 현대사회에 구현하려고 한 정토회를 꼽을 수 있다. 정토회는 1988년 3월 홍제동과 명륜동에 각각 정토법당과 한국불교 사회교육원과 불교사회연구소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법륜 스님과 1980년 초부터 대불련을 비롯한 불교 내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전개해온 일군의 불교활동가들이 ‘일과 수행의 통일’, ‘사회의 변화와 개인

의 수행을 함께하는 수행공동체'로 출범하였고, 199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1만일 결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1천 일마다 전 결사자들이 모여 활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정하며, 담당자들의 모든 직책도 바뀐다. 또한 1천일을 다시 100일마다 모든 결사자가 모여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향후 100일간의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결의하면서 진행된다. 30년에 걸친 1만일 결사는 오는 2022년 12월초에 끝난다. 이후 새로운 1만일 결사를 준비 중에 있다.

정토회는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기치로 만들어진 서원공동체이다. 현재 서초동에 약 50여 명, 문경에 약 50여 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기도와 발우공양, 매일 포살과 분기별로 자자를 실시하는 생활공동체 성원이 있다. 가능한 부처님의 초기 공동체적 삶을 기조로 수행하면서 살아가려는 공동체이다. 정토회는 서울과 문경의 생활공동체와는 별개로 전국 170개 법당의 결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을 하고 있다. 정토회 법당은 일반 사찰기능보다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서 역할을 한다. 결사자를 비롯한 신도들은 매일 아침 5시에 기도하며 '수행, 보시, 봉사'를 해야 하며 매주 1회 이상 법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후 법회와 모임이 불가능한 것을 계기로 하여 아예 이후 정토회의 모임의 성격과 방향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큰 결정을 내렸다. 전국의 법당을 모두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후 법회와 모임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해외를 포함하여 약 200여 법당을 없애는 과정에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많은 회원들과 2년간 100여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후 정토회는 각 지역마다 10-20명 단위의 소모임이 기반이 되어 불교와 경전공부와 나누기 등의 활동뿐 아니라 지역내에서 환경, 통일, 평화, 국제협력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글 Meet>를 통해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되어 법회와 사회활동을 해오던 터라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어느 단체보다 적은 편이었다. 정토회는 건물과 법당을 늘리거나 확대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접고,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하고 지역의 공유시설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모임을 갖으면서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건물공간에서의 대면관계를 기조로 한 이제까지의 종교 커뮤니티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온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SNS등의 4차산업 혁명기에 시도되는 초유의 시도라고 할수 있다.

정토회는 문경수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수련이 그 정신적인 중심역할을 한다.

특히 ‘깨달음의 장’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박 5일간 20명씩 진행되는 불교의 화두선을 종교적 색채 없이 진행하는 수련프로그램이다. 매주 3~4팀이 동시에 운영되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기 전까지 2,000여회 정도 수련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위빠사나 수행을 현대화시킨 ‘나눔의 장’, 노동선을 토대로 한 ‘일체의 장’과 ‘명상수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토회는 사회운동체로서 내부의 환경기구인 <에코봇다>를 두고 쓰레기제로운동, 빈그릇운동 등의 캠페인을 전개했고, 북한의 기아와 인권 해결을 위해 평화인권기구인 <좋은벗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개발협력기구인 <한국JTS>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토회와 독립적으로 남북평화를 위한 싱크탱크로서 <평화재단>이 있다.

대부분의 정토회 신도들은 수행과 사회활동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정토회의 새로운 시도와 모델은 불교뿐 아니라 종교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모델 중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행복한 절 : 경남 거창

<행복한 마을>은 성(聖)과 속(俗)을 벗어나 사부대중 공동체를 지향하며 거창군 남하면 대야마을에 있는 명상공동체이다.¹¹⁾ 설립자인 은산스님은 1995년 제너센터(Zener Center)를 설립하고, 2005년 거창의 제너하우스(Zener House)로 이전하였다. 이듬해 2006년 7월 9일 <행복한 절>을 창건하여 천일기도를 하였고 이후 2008년 7월 9일 사단법인 <행복한 마을>을 발족시켰다. <행복한 마을>의 사명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온 세상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¹²⁾이며, “삶과 일치되는 명상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실현하는 행복한 마을 (명상), 교육을 통해 행복나눔이를 양성하여 진정한 행복을 널리 전하는 행복한 마을(교육), 자선 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깨닫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마을 (자선), 창조를 통해 참나의 진정한 힘을 깨달아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펼쳐 보이는 행복한 마을 (창조),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마을 (사업)” 등, 5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행복한 절>은 사섭법(四攝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복나눔이 행동 강령’을 실행기풍으로 하고 있다. 다섯 개 항목이란 ① 항상 다른 이에게 베풀고, ② 항상

11) 행복한 절 홈페이지 : <http://www.happytemple.org/>

12) 행복한 마을 홈페이지 : <http://happyvillage.or.kr/>

진실 되고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며, ③ 모든 이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고, ④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항상 참됨의 길로 이끌며, ⑤ 하루 1000원(매달 3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행복한 절>을 기반으로 출발한 <행복한 마을>은 사부대중이 모여 사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한다. 명상, 생활, 자족경제, 사회적 기능이 어우러진 마을을 지향하며 공동으로 공양하고 자급자족 생활을 지향하며, 스스로 도술천을 구현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거창을 시작으로 전국의 여러 곳에 <행복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스님들을 위한 숙소인 <심검당>, 재가자를 위한 <휴심정>등, 강의및 회의공간 <제너홀>등의 식당과 카페와 텃밭을 운영하며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하며 각자 다양한 소임의 활동을 하면서 스님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의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으며 모두 ‘법우’라는 호칭 하나로 통일해 부르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나랑명상센터>는 부산시 수영구에 있으며, 은산스님이 중심이 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2시간씩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침의 소리>라는 명상메시지를 1주일에 2-3회 정도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요리를 현대식으로 만든 전문채식식당 <베지나랑>도 거창과 부산 광안리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침구, 유아용품, 손수건, 양말, 스카프 등과 장류 등 제철식품과 디자인용품을 판매하는 <기프트나랑>, 책장이나 목공 등 수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공생발전소>등을 운영하며, 사찰음식요리를 교육하는 <행복한공양주>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2월부터는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비영리 브랜드 <공공생활(共公生活)>을 개발해 채식과 명상문화를 함께 하는 복합힐링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공생습관학교: 나눔도 습관이다>는 주제로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3시부터 공생학교 배움의 장을 통해 명상도 하면서 다양한 나눔을 경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공간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은산스님은 사부대중 공동체의 실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곳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만클릭운동>이다. 평상시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을 내듯, 매 월초에 카페에 보시할 분들의 원력과 행장을 올려 추첨을 통해 1분이 결정되면 참가자들이 1만 원씩 추렴한 기금을 모아 당첨된 한 분에게 모아주는 것이다. 2018년 8월 9일까지 126번째 행사에 120명이 참여하여 120만원이 모아져 기부했고, 그 사람은 의미있게 사용하고 나중에 내역을 공지하면 되는 각별한 모금방식이다.¹³⁾

은산스님은 ‘승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무소

유 정신이며 <행복한 절>, <행복한 마을>은 사부대중이 무소유의 삶을 구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4. 불교가 기반이 된 공동주거공동체

1) 들꽃피는 마을 : 경기도 안성

들꽃피는 마을은 경기도 안성 금광저수지 옆에 10가구가 함께 집을 짓고 코하우징 (공동주거) 공동체로 살고 있는 곳이다. 특히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후 안성의료사협)>의 의사및 활동가 5가구와 수행공동체인 정토회 회원 5가구가 2년여 약 40명이 넘는 준비논의를 거쳐 2011년 집을 건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가족공동체처럼 살고 있다.

이곳 10가구는 각자 독립적인 주택을 갖고 있고 중앙에 커뮤니티건물이 1채가 있어 공동부엌, 세탁실, 도서실, 손님방 등으로 활용하고 수시로 마을의 생일잔치와 모임, 축제 등을 하면서 살고 있다. 신실한 정토회 회원인 건축가 정상오씨가 중심이 되어 이 공동체를 만들고 건축한 이후 코비즈건축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국의 공동체와 공동체건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공동체의 모든 거주자들은 안성의 의료생협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활동을 하는 멤버들이고 정토회원들은 매일 아침 기도와 사회적 실천 등을 함께 해나가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준비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가 떠나갔고 결국 현재의 10가구가 서로 배려와 노력을 통해 큰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끌고 만들어 왔다.

2) 우리동네사람들 : 인천 검암

또 다른 형태로 인천 검암의 <우동사(우리 동네 사람들)>는 정토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젊은이들이 귀농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2011년 9월 검암지역에 집을 복층빌라를 임대하여 15여명이 같이 살기 시작하여 2018년 경에는 인근의 6곳의 빌라를 얻어 50여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들은 초기에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며 공동의 청규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카페 50'이라는 협동조합 카페를 만들어 서초동과 불광동에서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암 지역 가까이에 '0.4km'라는 커뮤니티 펍 카페를 열어 운영하기도 했다.

함께 살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졌고 생활비는 1/3로 줄어 들었다. 직장을

13) 자세한 것은 만클릭 카페 홈페이지(<http://cafe.daum.net/ioooo.org>)를 참조하라.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 직장이 없는 친구들도 와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공부도 하고 강화도의 불음도에 농토를 얻어 농사도 짓고, 같이 대화모임과 연찬, 수행을 하는 젊은 공동체이다. 초기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정토회의 청년회 출신들이어서 수행하는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아졌다. 일본의 스즈카의 에즈원공동체와 네트워크도 하고 사이언스쿨 코스프로그램과 접목하여 1년간 다양한 코스와 공동체생활을 체험해보는 <반야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3) 소호산촌협동조합 : 울산시 울주군

소호산촌협동조합은 초기에 소호산촌유학센터로 시작되었다. 영남알프스 해발 500미터 산촌마을이 브랜드명처럼 붙는 산골 오지마을이다. 현재는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형 산촌유학센터로 이름이 높다. 산촌유학은 새로운 대안교육의 한 유형으로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일정 기간(보통 1년) 부모 곁을 떠나 산촌에서 생활하면서 산촌학교에 다니며 시골의 삶을 체험하는 산촌과 유학(지역 공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된 게 산촌유학이다.

2010년 3월 1기 산촌유학 세 명으로 시작해 농어촌유학센터 지원사업에 몇 차례나 선정되면서 소호마을 산촌유학은 10기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런데 대안교육과 차생산마을 등으로 유명해지면서 90가구에서 240가구로 늘면서 어린이들과 귀촌자들이 많아져 산촌유학은 산촌교육협동조합으로 확장되고 예전처럼 한 가지만 지향할 수 없게 되어 소호산촌협동조합을 만들어 야생차를 재배, 판매하고 있고, 소호체험휴양마을, 사과협동조합, 절임배추작목반등을 운영하며 산촌체험마을로 성장하며, 젊은이들의 청년들 공동체로 세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도 역시 정토회 회원들이 초기에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 왔다.

5. 출가자 공동체

1) 백장암 : 전북 남원

백장암은 실상사의 산내암자이다. 사찰과 산내암자들은 별개로 운영된다. 그러나 실상사의 사부대중공동체와 조응하여 출가자공동체로 전범이 될 만한 수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초기 몇몇 스님들이 승가의 운영원리에 맞게 살아보려는 마음을 내어 시작되었다. 모범적인 승가로서 개인수행과 대중생활을 하며, 매일 오전 11시에 사시예불을 하고,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경전을 읽거나 법의 주제를

정해 약 2시간 정도 정견을 위해 법담을 나누는 <법담탁마>를 한다. 겨울에 2번, 여름에 1번 정도 공동체 울력을 한다.

공동체대중을 들일 때는 백장선원 청규를 지킬 것을 동의받은 뒤에 방부를 들이며, 보름과 그믐에 대중들이 모여 포살계본에 의거한 <포살>을 진행하고, 살림을 매달초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대중공사를 통해 사찰의 대소사를 결정한다. 철저히 오후불식을 실천하고 안거철이나 해제철에 관계없이 매주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정기법회를 열어 누구든 절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도록 하고 있다. 이곳은 ‘승가기금’을 조성하여 출자가간의 빈부격차가 없도록 연수비나 의료비를 이곳에서 지급하고 있다.

V. 나가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불교공동체를 찾을 때는 그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많지만, 대체로 사찰의 승가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연관되어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의 불교공동체로서는 대표적인 곳은 태국의 <아숙(Asoke) 공동체>와 <왕사닛 아쉬람(Wongsanit ashram)>, 프랑스의 <플럼빌리지(Plum Village)>¹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리랑카의 마을운동인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Sarvodaya Shramadana Movement)>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아숙 공동체는 1975년 초 태국승려위원회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프라 포틸락 스님이 상좌부와 대승불교를 모두 적용한 수행법을 만든 뒤에 방콕 북쪽 외곽지역에 <산티 아숙>라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부패하고 물질적으로 오염된 태국의 불교종단을 비판하며 별도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아숙(Asoke)’란 ‘고통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산티’는 평화를 뜻한다.

아숙은 기성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며 ‘부니욘(Bun-ni-yom, 복짓기주의)’을 실천하는 복 짓는 단체(Bunniyom Society)’를 표방한 불교 수행 조직이다. 아숙은 자급자족하는 자연친화적 공동체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수확하여 얻은 것만 소비한다. ‘적게 소비하며, 많이 일하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슬로건으로 선업(복)을 짓는 행위를 중요 실천으로 하고 있다. 포틸락스님은 태국정치의 부패와 타락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가담한 적이 있으며, 청백리로 유명한

14) 틱찬팜감, 불광국제학술포럼 “현재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 ‘틱낫한 스님과 조화롭고 깨어있는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 2013을 참조.

방콕시장인 장롱 스리무앙도 이 스님의 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기도 하다.

태국의 왕사닛 아쉬람은 세계적인 재가 참여불교운동가인 술락 시바락사¹⁵⁾에 의해 만들어진 NGO활동가들이 사는 공동체이다. 기증받은 부지에 대안적인 사회 모델과 사회 활동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술락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불교 기반의 공동체이다. 84년 황무지를 개간하여 시작되었고 현재는 35명이 공동노동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술락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태국의 민주화운동의 중심인물이며, 투옥과 추방을 수차례 당하기도 하면서 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존경받는 불교지성이자 사회운동가이며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이 아쉬람은 국제생태마을네트워크(GEN)의 아시아 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왕사닛 아쉬람은 ‘영성이 있는 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태국뿐 아니라 미얀마와 라오스의 풀뿌리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부유한 나라를 모델 삼아 따라 잡기는 교육이 아니라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으로 두고 자립적이고 건강한 마을을 가꿀 는 지도자들을 길러내려고 노력한다. 이 리더십 교육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꾸준히 점검하고 다시 모여 토론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 교류하고 토론하는 과정의 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생태마을을 디자인 교육코스는 오늘날의 위기를 ‘대파국’이 아니라 ‘대전환’의 메시지로 인식하며 세계관과 자급자족의 경제, 인간과 자연의 재연결작업과 감수성을 위한 통합적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새로운 위기와 전환시대에 직면할 때 인간의 역사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 삶의 근본을 찾아 희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미래를 개척해온 시도들이 있었다. 홍길동전의 ‘울도국’, 여인들만의 이상촌 ‘이어도’, 티베트의 ‘상그릴라’, 유럽의 ‘유토피아’가 그것이다. 특히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건국을 하는데 40-600여명으로 구성된 270여개의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중에 사유재산은 허용하되 공동생산을 하는 공동체 ‘모샤브’가 360개 있으며, 공동노동기업체인 ‘모샤브 쉬투파’는 70여개, ‘모샤바’라는 농촌공동체가 100여개가 있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 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학살이라는 정치적 판단 여부를 떠나 사막이라는 황무지, 외부의 위협이라는 악조건 속에 자신들끼리 상호부조하며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바로 공동체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공동

15) 술락 시바락사는 1960~1970년대 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이며, 태국에서 높이 존경받는 불교지성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체는 아주 유용한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최근에 마을을 하나의 자치(정치)와 자립(경제)의 완결성을 높여 마을공화국운동으로까지 발전하는 시민운동적인 움직임이 있다. 탈성장이 화두인 시대, 돈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마을공동체, 풀뿌리자치, 커먼즈, 공유사회, 협동조합운동 등 모두 사람들끼리의 협력과 결합, 배려와 돌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 모두 사람들끼리의 협력적 관계를 고도화하는 문화들 이다.

이제 “성장사회가 아니라 성숙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찰이 지역이나 마을,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촉매, 촉진하는 매개역할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귀농귀촌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상사의 경우가 바로 이들이 지역 내에 공동체적으로 정착하도록 큰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지역의 사찰들이 귀농귀촌자들의 비빌언덕 역할을 하던가. 이미 있는 농촌이나 지역의 농촌쓰레기를 정화하거나, 그들의 생산물들을 도시에 연결시켜주는 일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거점역할을 하면 앞으로 불교의 새로운 발전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희망을 만드는 대안적 실천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병기, ‘상좌불교 공동체의 계율은 여전히 유효한가’, 불교평론 44호.
- 박송묵(2018), 사찰경제, 마을에서 길을 찾다, 승시 매대를 위한 전망, 승시 학술세미나 자료집, 팔공산승시축제 봉행위원회.
- 올리버 포피노(O. Popenoe)·크리스 포피노(C. Popenoe)/ 이천우 역(1993),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정신세계사.
- 유정길(2008), “불교와 공동체 - 불교기반 공동체의 실험” 중앙승가대 ‘종교기반 지역공동체의 현실과 과제’.
- _____(2013), 한국불교공동체와 불교의 미래,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 불광사 중창불사 낙성기념 국제학술포럼 자료집, 불광연구원.
- _____(2017), 한국불교공동체의 실험과 전망, 21세기 대안공동체의 실험과 불교, 신지식도량.
- 이명호(2020), “미래사회 사찰공동체연구”, 48쪽,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

교사회연구소.

인드라마생명공동체(2008), 마을에서 길을 찾다. 인드라마.

정규호(1993), “환경문제 심화에 따른 생태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⁵⁾.

조현(2018),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도서출판 휴.

피쿨 와니차피차트(2013), “생태적기업과 나눔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속공동체.”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 불광사 중창불사 낙성기념 국제학술포럼 자료집. 불광연구원.

코린 맥러플린, 고든데이비드슨 지음, 황대권 책임번역(2005), “새벽의 건설자들”, 한겨레신문사.

Global Ecovillage Educators for a Sustainable Earth. 2012. Ecovillage Design Education: A Four-week Comprehensive Course in the Fundamentals of Sustainability Design. Gaia Education.

<https://gaiaeducation.org/wpcontent/uploads/2017/02/EDE-Curriculum-English.pdf>

MaLaughlin and Girden Davidson, 1985, "Builders of Dawn" - Community Lifestyles in a Changing World, Book Publishing Company.

Abstract

Buddhism Together with Grassroots Communities, and Villages

Yoo Jung-Gil

(Head of operation of Buddhist Environmental Solidarity)

(Director of Green Buddhism Research Institute)

Buddhism is a religion that originally began as a monk community. Therefore, there remains a long tradition of living as a community, and in particular, it served as an important basis for village communities such as Hyangdo, Seungdo, and Geolsa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Joseon Dynasty. In the recent climate crisis, grassroots autonomy, cooperatives, and village communities have drawn attention as ecological alternative social movements, drawing attention to Buddhist community attempt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mmunity of Buddhism by classifying it into five main categories. ① <A temple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is a place that supports and helps local residents such as Daegak-sa Temple, Daegwangmyeong-sa Temple, Seongnim-sa Temple, Seondeok-sa Temple, Mihwang-sa Temple, Hwaeom-sa Temple, and Maeum(Heart)Foundation ② <The temple, which is the center of the village community> plays a central role in creating a community relationship in the village, such as Silsang-sa, Naksan-sa Temple and Gwaneum-sa Temple ③ As a <Sangha Community, Intentional Community>, it is a place where people live together with the early Sangha community, performing together with the Jungto-hoe or Happy Temple ④ In the case of the <Community on which Buddhism is ba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such as Wildflower villages, Our towns People and Soho Mountain Village Cooperatives, do not advocate Buddhism, but those who started in the early days were the driving force for the practice of Buddhism. ⑤ The <Monk Community> is a community of Buddhist monks and temples, but it was decided to introduce only <Baekjangam> because not all of them could be mentioned.

These attempts are the process of seeking new Buddhism and the process of trying to create an alternative future, and whether it is a success or failure, it will be a result of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process.

Key words : Sangha Community, Village Community, Local Community, Co-housing Community, Buddhist Community, Hyangdo, Seungdo, Ecological Alternative Society, MahaSangha, Lay Buddhist Community, Shared Society, Commons, Cooperative

토론문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불교”를 읽고 나서

담 준

대한불교조계종 광주선덕사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정길 선생님(이하 발표자)의 견해에 먼저 깊이 공감합니다. 거기에 지속가능한 사회는 성장과 분배라는 삶의 양적인 지표를 거부하고 삶의 질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계급사회와 인간소외,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화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용이하다.(p.4)는 발표자의 말씀도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말씀처럼 불교공동체를 이명호는 1)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와 출재가가 함께하는 <사부대중공동체>, 재가자들 중심으로 수행하고 법회를 보는 <재가자 공동체>, 출재가 수행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수행하는 <승가공동체>, 그리고 출가자들의 수행공동체인 <출가자 공동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발표자는 불교공동체를 1) 지역사회 속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역할을 하는 사찰을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찰>로, 2) 사찰이 마을에 강력한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며 주민들을 굳건하게 결합하고 있는 사찰을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사찰>로, 3) 불교가 기반이 되어 함께 생활 공동체로서 출재가가 함께 수행하며 사는 곳을 <승가공동체(대안적 계획공동체)>로, 4) 불교공동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의 출발이 불교적 수행 지향적인 사람들이 주도하여 만들었거나 중심으로 참여하는 곳을 <불교가 기반이 된 공동 주거공동체>로, 5) 결계와 승가공동체성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을 <출가자 공동

체>로 명명하면서 구분하고 있는데, 저는 발표자의 분류방식이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발표자의 분류에 따르면 제가 몸담고 있는 선덕사는 1) 번의 성격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2)~5)까지의 형태는 불교공동체에서의 내에서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다종교 시민사회의 적용 모델로 작동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는 우리 사회환경에서 불교가 그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특정 지역사회 혹은 마을공동체에서 유의미한 종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에 대해 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자신의 어설픈 입장은 지역공동체 속에서 선덕사와 같은 도심 포교 사찰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 본연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종교를 초월한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와 기후위기에 대한 공통의 노력과 같은 공공선을 향한 관심과 실천에도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세속적/물질적 가치의 추구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각자도생의 경쟁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우리 문화의 지형을 생명존중의 문화로 전환해낼 것인가에 대해 모든 종교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스트 코로나, 탈종교화의 위기의 시대에 종교가 바로 서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배제, 미움과 분열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 극복하면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존의 윤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표현처럼 기후위기의 해결과 더불어 생태적 대안 사회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과정에도 [종교가] 기여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p.2) 그런 시대적 화두를 늘 염두에 두면서 선덕사는 마을의 중심역할을 맡기보다는[말을 역량도 되지 않고(?)] 경쟁과 차별이 내면화되고 능력주의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가고 실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시도로서 우리 사찰에서는 1층 공간을 종교적 색채를 빼고 사랑방 카페와 작은 도서관을 배치해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고 생산적 대화를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문화센터 등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를 두어 스트레스 등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몸살림 운동이나 건강한 채식, 명상과 같은 유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또 제공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끝으로 제가 늘 불교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실존적 문제이기도 한데, 아직 그 슬기로운 해법을 찾지 못해 질문 겸 발표자의 좋은 의견 청해 듣고자 합니다.

- 1) 발표자께서는 선덕사를 포함한 불교공동체의 다양하고도 긍정적인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공동체 속의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개인들이 갖는 고유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개인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을 텐데,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는 공동체의 결속과 개인의 자율성 사이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아가야 할까요? 자칫 공동체의 가치를 앞세우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집단주의적 형태로 나아가기 쉬운데, 실제 저 역시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겪는 이런 갈등의 사례들을 더러 접한 적이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 2) 위에서 저의 생각을 잠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종교가 도덕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배타적, 우월한 지위도 갖지 않는 다종교 혹은 탈종교 시민사회라 할 수 텐데, 이런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반 종교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불교가, 불교만이 갖는 특장(特長)이 있다면, 발표자의 표현처럼 ‘성장사회가 아니라 성숙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대안을 그려내야 하고, 또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